

충남도, 구제역 방역 전국 최고

방역관리평가 구제역 분야 1위 백신항체양성률 87% 유지 호평

충남도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 ‘2017년도 전국 지자체 가축질병 방역관리평가’에서 구제역 분야 1위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구

제역은 돼지 구제역 백신항체양성률, 항체양성률 상승도, 구제역 발생현황 등 항목을 합산해 평가했다. 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백신항체양성률(87%)을 유지하고 있는 점, 높은 항체양성률에 힘입어 2016년 4월 이후 현재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도내에선 1100여 농가가 223만 마리에 이르는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양돈규모로 전국 최대다.

도는 지난해 11월 전국 구제역·AI 가상방

역훈련 평가대회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고 12월엔 전국 가축방역 시책평가 3위에 오르기도 했다.

박병희 농정국장은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돼지가 사육되는 양돈밀집지역임에도 구제역방역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며 “각 축산농가들이 참여하는 철저한 예방백신 접종과 소독관리 강화를 통해 구제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KAIST 학생봉사단인 지영석 캄보디아봉사단과 장병규 인도네시아봉사단 36명이 10일 교내에서 발대식을 가진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AIST 제공

KAIST 학생 해외봉사단 발대

캄보디아 13일·인도네시아 19일 출국

KAIST 학생봉사단인 지영석캄보디아봉사단과 장병규인도네시아봉사단 36명이 10일 교내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봉사단은 과학·의료 분야 출판사인 엘스비어 지영석 회장과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기부금 지원을 받아 봉사

단 이름이 지어졌다.

캄보디아봉사단은 오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발해 호산나고에서 70여 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6일까지 과학실험 교육봉사를 실시한다. 인도네시아봉사단은 오는 19일 자카르타로 출발해 탐퍼 해피센터에서 무료급식 봉사 등을 펼친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대전여성계 신년교례회 대전시 여성단체협의회는 10일 오전 11시 유성호텔에서 2018년 대전여성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김택수 정무부시장과 정·재계 인사, 여성지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소개와 덕담, 교류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대전시 제공



아름다운 한끼 나눔 페이스북을 매개로 결성된 봉사단체 ‘대전사람드루와’(회장 목지원)는 지난 9일 오후 첫 ‘아름다운 한끼 나눔’ 행사를 갖고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지역사회주요형 노인건강돌봄사업 참여 어르신 100명에 직접 만든 밀반찬을 배달했다. 대전사람드루와 제공

충남대전학사 신규 입사생 모집

충남인재육성재단이 운영하는 충남대전학사가 오는 19일까지 올해 신규 입사생 244명을 모집한다. 성별로 남학생 77명, 여학생 167명이다.

충남도민의 자녀로 본인 및 직계존속의 주소가 공고일기준 현재 1년 이상 충남에 주소를 둔 충남·대전권 대학 신입·재학생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생활정도, 학업성적을 합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자녀 등은 별도로 선발한다. 대전 선화동에 있는 충남대전학사는 월 16만원의 부담금(기숙사비)으로 개인호실(2인1실·화장실 포함), 급식(평일 2식, 주말·공휴일 3식)을 제공한다. 서고, 독서실, 세탁실,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www.cninja.or.kr)를 참조하거나 충남대전학사(042-824-5127)로 문의하면 된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동·서부교육청 계약업무 만족도 93.2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배영길)은 시설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 539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3.2점의 높은 만족도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계약업무 청렴도 제고 및 업무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계약업무 만족도, 계약업무 청렴도, 계약업무 처리의 공정성 등 10개 항목을 실시했다. 조사결과에서 계약업무 처리의 공정성 항목이 97.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 대비 계약업무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동·서부교육청은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실시, 홈페이지를 통한 계약절차 안내, 대금지급 문자메시지 알림 등 친절하고 공정한 자세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로 보고 있다.

양 교육청 관계자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오늘 선병원 신년음악회

선병원재단(이사장 선두훈)은 11일 오후 4시 30분 유성선병원 국제검진센터 1층 로비에서 환자와 시민을 위한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음악회는 선병원 문화이사이자 바이올리니스트 선형훈과 소프라노 김현정, 피아니스트 노경아가 무대에 오른다. 병원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지역주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이준섭 기자

내일 KAIST 신년음악회

대전시립교향악단과 KAIST는 12일 오후 7시 30분 KAIST 대강당에서 KAIST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음악회엔 제임스 저드 대전시향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와 신민경 바이올린 수석이 협연해 왈츠와 폴카를 선보인다. 입장권은 전석 무료이며 온라인을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배부 받을 수 있다. 예약은 KAIST 홈페이지(kaist.ac.kr)나 아르스노바(arsnova.co.kr)에서 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화(042-270-8382~8)하면 된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대전교육청 계약실무편람 발간

대전시교육청은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실무담당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2018 계약실무편람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실무편람은 계약일반과 공사계약, 물품계약 및 관리, 용역계약, 공고서 작성 실무, 도움자료 및 사례 Q&A로 구성됐다.

특히 도움자료에는 세출예산편성집행 10대원칙 및 운영지침, 세출예산 성질 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업무추진비 공통 및 성질별 집행지침, 각종사례 Q&A 등 다양한 자료가 수록됐다. 유상영 기자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가 지난 9일 농협충남본부 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내포초등학교 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행복채움금융교실 겨울방학 특강을 갖고 있다. 충남농협 제공

충남농협 행복채움금융교실 겨울방학 특강

학생들에 생생한 역할 실습 제공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는 지난 9일 농협충남본부 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내포초등학교 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행복채움 금융교실 겨울방학 특강을 했다. 이번 특강은 오는 16일과 23일에도 실시될 예정이다.

청소년금융교육센터는 농협충남본부의 내포이전과 함께 약 100평 규모로 신설됐으며, 강의시설을 포함한 은행창구와 똑같은 전산기기, 지폐계수기, 미디어월 등을 보유하고 있어 학생들의 생생한 역할 실습이 가능하다.

행복채움금융교실은 농협은행 직원인 금융교실 강사가 학교를 찾아가 맞춤형 교

육, 은행직업체험, 금융사기예방, 핀테크 등 다양한 금융 콘텐츠를 체험토록 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금융 경제관과 진로정보 제공을 지원하는 과정이다. 2013년부터 매년 약 100회씩, 5000여 명의 학생에게 실시되고 있다.

원종찬 본부장은 “농협충남본부의 내포신도시 이전과 함께 실질적인 금융체험이 가능한 청소년금융교육센터를 운영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미래의 건강한 경제 주체로 자라나고, 도농 간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금융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ggilbo.com

충남도립대 배출 공무원 700명 돌파

충남도립대가 1998년 개교 이후 배출한 공무원이 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10일 집계됐다.

지난해 전국 공무원 선발시험에 합격한 도립대 재학·졸업생 수는 42명이다. 분야별로 소방 12명, 행정 11명, 경찰 5명, 시설 9명, 환경 2명, 전산 1명, 방재안전 1명, 방송통신 1명 등이다.

이번 합격자 배출로 공직에 진출한 도립대 재학·졸업생은 707명으로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이전까지 517명을 기록한 이후 2014년 44명, 2015년 62명, 2016년 42명, 지난해 42명 등 4년 연속

으로 40명 이상 배출했다.

이 대학은 2008년부터 ‘맞춤형 공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재학생 50여 명을 선발해 공채시험 대비 등·하계 특강, 기술직렬 특별대비반 운영, 동영상 강의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직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분야별 자체 모의고사와 맞춤형 집중강의를 하고 정부세종청사사와 인사혁신처 방문, 공직박람회 관람, 도의회 방청 등 공직 태도 함양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대전상수도본부, 사업 조기발주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균형집행을 통한 조기발주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주민생활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사업을 조기 발주키로 하고 본부 내 시설(토목)직 공무원 26명으로 구성된 ‘합동설계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합동설계 T/F팀은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 30일간 운영하며 합동설계를 통해 2018년 본예산에 편성된 49개 상수도사업 분야 단위사업에 18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조기 발주 할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연간단계계약 공사 25건(60억 원)은 이미 개찰을 완료했다”며 “블록 구축정비, 노후관 개량사업, 배수관부설공사 등에 대해 2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 착수, 수도물 상수기인 여름철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합동설계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억제하는 것은 물론 자체설계로 설계 용역비 등 약 7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세종교육 통합안내 책자 제작

세종시교육청은 ‘2018 세종교육 통합안내’를 제작·배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타 시·도에서 세종으로 전입하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입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 행정 편의와 세종교육에 대한 사전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책자는 유치원·초·중·고등별 전입학 절차를 비롯해 교육·교과서 구입방법, 2018 중학교 신입생 재배정, 2018 일반계고 입학전 배정, 읍·면·동 학교지도, 학교별 학급·학생수, 자주 묻는 질문 등으로 구성됐다. 또 혁신학교와 신선편 학교 표기 외에도 캠퍼스형공공교육과정과 마을학교 신청방법 등 세종교육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항도 수록돼 있다. 더불어 책자는 시교육청 전입학지원센터와 새롬동·보람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배부하고 입주예정 아파트는 사전점검 기간 중 현장사무소에서 나눠줄 예정이며, 시교육청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도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세종엔 2·3생활권 아파트 1만 4039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전입학 학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관록 기자 dhc@ggilbo.com

묘견의 오늘의 운세

1월 11일 <음력 정유년 임자(11)월 정묘(25)일>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48년 마음을 비우고 분수에 넘치지 않는 행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49년 모든 것은 있어 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60년 유익한 거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금전문도 좋아지게 됩니다.

72년 서로가 당장이라도 원수로 돌아설 듯하나 결국 화해합니다.

84년 좋은 취직자리가 있습니다.

49년 모든 것은 있어 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61년 욕심만 조금 내려 놓는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73년 분실한 물건이 있다면 찾기가 힘들 것이니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85년 잘 못된 인연으로 인해 재물에 손실이 따르게 됩니다.

50년 계획성 없이 일을 해나간다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62년 병이 들면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가니 빠른 치료가 요구됩니다.

74년 억지로 일을 만들려 들면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86년 신경을 쓰고 머리를 써야 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51년 마음을 바르게 쓰면 평균을 이룰 수 있습니다.

63년 부정을 저지르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75년 떠난 사람 마음을 잡으려 하지 마세요. 새로운 인연이 곧 찾아오게 됩니다.

87년 친구와 싸우지 마십시오. 우정을 돈독히 하십시오.

52년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기에 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64년 뒷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면 더욱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76년 쉽게 찾을 수 없으니 단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88년 욕심을 버리고 현재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53년 음과 양이 화합하고 상하가 어께를 나란히 하는데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65년 병세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빨리 병원을 찾아가도록 하십시오.

77년 실수로 비롯된 일입니다. 천천히 되짚어 보세요.

89년 마음에 중심이 없으니 하는 일마다 잘 안됩니다.

54년 소인의 체통을 잃으면서도 이득을 보려하지 말고 큰 그릇으로 대처하십시오.

66년 희망 없는 일에 재물과 노력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78년 찾을 물건이 있다면 동남방에 깊이 숨어 있습니다.

90년 뜻 하지 않게 몇 군데에서 귀인이 나타나 도움을 주니 만사가 여의합니다.

43년 어려운 일을 능히 이겨내기 좋은 일만 생깁니다.

55년 여행을 가게 되면 고난이 따르게 되니 얻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67년 귀화를 따르는 무리가 점점 많아지니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79년 혼인 문제로 가족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44년 처음에는 다소 힘이 들지라도 나중에 배려해주시니 모든 것이 좋게 될 것입니다.

56년 재물을 욕심 내지 말고 솔직에 가지지 마십시오.

68년 시기가 맞아 떨어져 이루어지는 목척을 이룰 수 있습니다.

80년 두 사람의 마음이 각각이니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45년 스스로를 조절할 줄 아는 실력을 갖추어진다면 만사가 대길할 운세입니다.

57년 귀화의 능력에 절정에 이르게 되니 잃지 못할 생각은 가지지 마십시오.

69년 실직자는 오랜 실업자 생활을 청산할 때가 왔습니다.

81년 대수롭지 않은 병이나 젊을수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46년 뒷사람과의 전목을 돈독히 한 덕을 볼 수 있습니다.

58년 방해하는 것이 없으니 막힐 것이 없습니다.

70년 화해로 해결하려 하지만 상대가 그러려 하지 않습니다.

82년 괴롭지만 고통을 내색하지 마십시오. 좋을 수도 있습니다.

47년 자신의 고집대로 일을 처리하니 어려움에 막혔을 때 도와주는 이가 없습니다.

59년 밀려오는 부채로 부도 위험이 있습니다.

71년 전업이나 개업을 생각중이라면 신중히 결정하십시오.

83년 몸조심 하십시오. 건강권이 귀하지 못합니다.